

《世說新語》中 주요인물의 품평내용 분석

—王導를 중심으로—

金 鎮 永*

◁ 목 차 ▷

I. 緒論	2. 被品評者 王導의 인물품평 분석
II. 本論	1) 王導와의 관계
1. 品評者 王導의 인물품평 분석	2) 王導 품평방식
1) 피품평자와의 관계	3) 王導 품평내용
2) 인물품평방식	4) 王導 品評결과
3) 인물품평내용	III. 結論
4) 인물품평결과	【도표】

I. 緒論

《世說新語》는 전체 36편에 걸쳐 총 1130조의 고사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東漢末에서 東晉말까지 약 200년간 실존하였던 제왕, 사족, 문인, 현자, 은자, 화상, 부녀자 등 총 700여 명의 언행과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고사 전체가 인물품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물 품평은 《세설신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물품평은 당시 풍미하던 淸談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인물의 명성과 입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설신어》에는 인물품평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언어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 당시 士族 가운데 瑯琊 王氏의 대표적 인물인 王導를 대상으로 하여 품평자로서의 왕도, 피품평자로서의 왕도, 인물 품평 그들 사이의 관계, 품평 방식, 품평 내용, 품평 결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청담이 풍미하던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 심미적 인물 품평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II. 本論

1. 品評者 王導의 인물품평 분석

a. 賞譽편 제37조:

왕공(왕도)이 태위(왕연)를 품평하기를 “협준한 바위가 수려하게 우뚝 솟아 천 길 벽으로 서 있다.” 라고 했다.(王公目太尉:「巖巖清峙, 壁立千仞。」)

* 피품평자: 王衍(王夷甫)

* 관계: 瑯琊 왕씨로써 왕도와 같은 씨족(別族)

* 비교, 비유대상: 巖巖(협준한 바위)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품평내용: 風格(외모). 賞譽편 제37조 注의 願愷之 <王夷甫畫贊>에서 「왕이보는 타고난 풍모가 빼어나 식자들이[그를] 협준한 바위가 수려하게 우뚝 솟아 천 길 벽으로 서있다.(夷甫天形瓌特, 識者以爲巖巖秀峙, 壁立千仞.)」고 생각했다.

* 품평결과: 好評

b. 品藻편 제23조:

유공(유량)이 왕승상에게 묻길 “남전은 어떻소이까?” 라고 하자, 왕승상이 말할길 “진솔하고 특출하며 간악하고 고귀한 것은 부친(王承)이나 조부(王湛)에 뒤지지 않지만, 그러나 활달하고 담담한 점은 진실로 그만 못하지요”라고 했다.(庾公問丞相:「藍田何似?」王曰:「眞獨簡貴, 不減父祖; 然曠瀟處, 故當不如爾。」)

* 피품평자: 王述(王藍田)

* 관계: 왕술은 太原 왕씨로써 낭야 왕씨와 혼인²⁾을 통한 親屬³⁾ 관계(사돈의 사돈)로 文學편 제22조에서 함께 談論을 나누었으며, 賞譽편 제62조에서 왕승상은 그가 동해 태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초징하여 속관으로 삼았다.(王丞相以其東海子辟爲掾) 그리고 品藻편 제23조에서 왕승상이 왕람전을 초징하여 속관으로 삼았더니…….(王丞相辟王藍田爲掾)라는 내용으로 보아 왕도는 그를 자신의 속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2) 표1 참조.

3) 親族, 氏族 등 혈연관계 이외의 주로 혼인으로 맺어진 他人보다 親疎한 관계에 있는 族屬.

* 비교, 비유대상: 품평자 왕도와 친숙 관계(사돈의 사돈)이며, 피품평자인 왕술의 친족인 부와 조부를 비교 대상으로 삼음.

* 품평방식: 比自家人(친족과 비교)

* 품평내용: 風格과 談論

* 품평결과: 어떤 점은 비교 대상과 같거나 낫지만, 또 다른 어떤 점은 비교 대상만 못하다.

c. 文學편 제22조:

왕승상(왕도)과 은중군(은호)이 서로 반복하여 응수하는 바람에 나머지 여러 명현들은 조금도 끼어 들 틈이 없었다. 이미 쌍방이 서로의 견해를 남김 없이 다 펼치고 난 뒤에 왕승상이 탄식하여 말하길 “방금 전의 담론은 결국 그 명리의 근원이 귀착되는 바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언변과 비유만큼은 서로에게 손색이 없으니 정시 시기의 청담이 바로 이랬도다”라고 했다. (丞相與殷共相往反, 其餘諸賢, 略無所關, 既彼我相盡, 丞相乃歎曰: 「向來語, 乃竟未知理源所歸, 至於辭喻不相負, 正始之音, 正當爾耳!」)

* 피품평자: 殷浩

* 관계: 혼인을 통한 친숙 관계(사돈의 동서)⁴⁾였으며, 文學편 제22조에서 함께 談論을 나누었다.

* 비교, 비유대상: 正始之音(정시 시기의 청담)

* 품평방식: 比物(사건에 비유)

* 품평내용: 談論

* 품평결과: 好評

d. 賞譽편 제47조:

왕승상(왕도)이 어떤 사람에게 서찰을 보내 말하길 “[주의는] 고아한 인물로 큰 기량을 지니고 있으니 어찌 버려둘 수 있으리오?” 라고 했다. (王丞相與人書曰: 「雅流弘器, 何可得遺?」)

* 피품평자: 周顛

* 품평방식: 直敘(직접서술)

* 품평내용: 風格

4) 표2 참조. 任誕편 제23조의 각주에 「원담의 큰 누이는 이름이 여황이고 은호에게 시집갔으며, 작은 누이는 이름이 여정으로 사상에게 시집갔다(耽大妹名女皇, 適殷浩, 小妹名女正, 適謝尚)」라는 내용이 있다.

* 품평결과: 好評

e. 品藻편 제16조:

어떤 사람이 승상(왕도)에게 묻길 “주후(주의)는 화교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대답하길 “장여(화교)는 우뚝 솟아 있지요” 라고 했다.(人間丞相:「周侯何如和嶠?」答曰:「長輿嵯嶠。」)

* 피품평자: 周顛

* 비교, 비유대상: 和嶠(長輿)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품평내용: 비교대상과 단순우열 비교

* 품평결과: 비교대상 好評. 내용상 화교가 주의보다 뛰어나다는 뜻.(주의 < 화교)

f. 品藻편 제28조:

왕우군(왕희지)이 젊었을 때, 승상(왕도)이 이르길 “일소(왕희지)가 어찌하여 또한 만안(유수)에게 뒤지겠는가?” 라고 했다.(王右軍少時, 丞相云:「逸少何緣復減萬安邪?」)

* 피품평자: 王羲之

* 관계: 친족관계(사촌의 아들, 조카)⁵⁾

* 비교, 비유대상: 劉綏(萬安)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품평내용: 비교대상과 단순우열 비교

* 품평결과: 好評(왕희지 > 유수)

g. 品藻편 제26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기를 “사인조(사상)를 만날 때면 항상 사람을 향상진보케 하지만, 하차도(하충)와 담론할 때면 다만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며 ‘정작 진실로 이와 같다’고만 한다” 라고 했다.(王丞相云:「見謝仁祖, 恒令人得上; 輿何次道語, 唯舉手指地, 曰:「正自爾馨!」」)

* 피품평자: 謝尚(謝仁祖)

* 관계: 친숙관계(사돈)⁶⁾

5) 표3 참조.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好評

h. 品藻편 제26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기를 "사인조(사상)를 만날 때면 항상 사람을 향상진보케 하지만, 하차도(하충)와 담론할 때면 다만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며 '정작 진실로 이와 같다' 고만 한다" 라고 했다.(王丞相云:「見謝仁祖, 恒令人得上: 與何次道語, 唯舉手指地, 曰:「正自爾馨!」)

- * 피품평자: 何充(何次道)
- * 관계: 賞譽편 제59조⁷⁾와 品藻편 제26조에서 함께 談論을 나누는 관계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談論
- * 품평결과: 惡評⁸⁾

I. 容止편 제16조:

왕승상(왕도)이 위세마(위개)를 보고 나서 말하길 "너무나도 몸이 쇠약하여 비록 온종일 몸조리한다 하더라도 비단 옷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했다.(王丞相見衛洗馬, 曰:「居然有羸形: 雖復終日調暢, 若不堪羅綺。」)

- * 피품평자: 衛玠(衛世馬)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결과: 위개의 병약함을 惡評. 容止편 제16조 注의 〈衛玠別傳〉에서도 또한 「위개는 평소 몸이 병약했다.(玠素抱羸疾)」라고 말하고 있다.

6) 표2 참조.

7) 「하차도가 승상의 저택으로 갔더니, 승상이 주미로 자리를 가리키면서 하차도를 불러 함께 앉으며 말하길 "오시오! 오시오! 여기가 당신의 자리요"라고 했다.(何次道往丞相許, 丞相以塵尾指坐, 呼何共坐曰: "來! 來! 此是君坐")」 여기서 塵尾란 '塵尾扇' 또는 '拂子'라고도 하는데, 禪僧이나 清談客들이 談論할 때 손에 들고 흔드는 등근 모양의 총채를 가리킨다.

8) 劉孝標 注의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고 한 것은 마치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而此章以手指地, 意如輕詆)」라고 한 것에 대해 김장환 교수의 역주는 「徐震堦은 땅을 가리킨 것은 그의 識解가 凡下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여 유효표의 견해를 따랐으나, 余嘉錫은 왕도가 하충과 담론할 때 하충이 "정작 진실로 이와 같다"고만 한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여 더 이상 의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유효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j. 傷逝편 제6조:

승상 왕공(왕도)이 명을 내리길 "위세마는 마땅히 이장을 해야한다. 이 분은 고아한 명사로서 천하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이니. 소박한 제물이거나 차려서 옛 정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했다. (丞相王公敎曰:「衛洗馬當改葬. 此君風流名士, 海內所瞻, 可脩薄祭, 以敦舊好.」)

- * 피품평자: 衛玠(衛洗馬)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好評

k. 賞譽편 제57조:

왕승상(왕공)이 조약을 불러 밤에 담론을 나누다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에 손님이 왔는데, 공은 아직 머리도 빗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약간 피곤한 상태였다. 손님이 말하길 "이와 같으시니 공께서는 아마 어젯밤에 주무시지 못한 모양이군요?" 라고 하자 공이 말하길 "어젯밤에 사소(조약)와 함께 담론을 나누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함을 잊게 하더이다"라고 했다. (王丞相招祖約夜語, 至曉不眠: 明旦有客, 公頭鬢未理, 體亦小倦. 客曰:「公昨如似失眠?」公曰:「昨夜與士少語, 遂使人忘疲.」)

- * 피품평자: 祖約
- * 관계: 함께 談論을 나누는 관계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談論
- * 품평결과: 好評

l. 輕詆편 제8조:

왕우군(왕희지)이 남쪽에 있을 때, 승상(왕도)이 편지를 보내 조카들이 뛰어나지 못함을 늘 탄식하며 이르길 "호돈(왕팽지)과 호독(왕호지)은 여전히 그 모양이다" 라고 했다. (王右軍在南, 丞相典書, 每歎子姪不令. 云:「虎兇·虎犢, 還其所如.」)

- * 피품평자: 王彭之, 王彪之
- * 관계: 친족관계(조카)⁹⁾
- * 비교, 비유대상: 어렸을 적 小字(虎兇: 새끼 돼지, 虎犢: 새끼 소)

9) 표3 참조.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재능
- * 품평결과: 惡評 「遷其所如」는 才質이 부족하다는 뜻¹⁰⁾.

m. 容止편 제25조:

왕경예(왕념)는 미려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부친] 왕공(왕도)에게 문안을 두드렸더니 왕공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길 “애야, 재능이 용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구나!” 라고 했다.(王敬豫有美形, 問訊王公: 王公撫其肩曰: 「阿奴, 恨才不稱!」)

- * 피품평자: 王恬(王敬豫)
- * 관계: 친족관계(아들)¹¹⁾
- * 비교, 비유대상: 피품평자 王恬 자신의 외모
- * 품평방식: 比物(사물과 비교)
- * 품평내용: 재능
- * 품평결과: 惡評(재능 < 외모)

n. 賞譽편 제54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길 “조현량(조협)은 명찰하고, 대약사(대엄)는 엄숙하며, 변망지(변호)는 준엄하다” 라고 했다.(王丞相云: 「刁玄亮之察察, 戴若思之巖巖, 卜望之之峯峴。」)

- * 피품평자: 刁協(刁玄亮)
- * 품평방식: 直敘(직접 서술)
- * 품평내용: 風格(정밀하게 사물을 관찰하여 분석해내는 것)
- * 품평결과: 好評

o. 賞譽편 제54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길 “조현량(조협)은 명찰하고, 대약사(대엄)는 엄숙하며, 변망지(변호)는 준엄하다” 라고 했다.(王丞相云: 「刁玄亮之察察, 戴若思之巖巖, 卜望之之峯峴。」)

10) 역주에서 김장환 교수는 「遷其所如는 왕팽지와 왕표지가 그들의 小字인 虎純과 虎犢처럼 才質이 못났다는 뜻」이라고 하고 있다.

11) 표1 참조.

- * 피품평자: 戴儼(戴若思)
- * 비교, 비유대상: 巖巖(산이 높고 험한 모양)¹²⁾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好評

p. 賞譽편 제54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길 “조현량(조협)은 명찰하고, 대약사(대업)는 엄숙하며, 변망지(변호)는 준엄하다.” 라고 했다.(王丞相云: 「一玄亮之察察, 戴若思之巖巖, 卞望之之峯峯。」)

- * 피품평자: 卞壺(卞望之)
- * 비교, 비유대상: 峯距(산봉우리가 높이 솟아있는 모양)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성품)¹³⁾
- * 품평결과: 好評

q. 品藻편 제13조:

왕승상(왕도)이 일찍이 우비에게 말하길 “공유는 삼공의 재능은 있지만 삼공의 명망이 없고, 정담은 삼공의 명망은 있지만 삼공의 재능은 없는데, 이를 겸비한 사람은 바로 그 대로다!” 라고 했다.(王丞相嘗謂比曰: 「孔愉有公才而無公望, 丁潭有公望而無公才, 兼之者其在卿乎?」)

- * 피품평자: 虞駿
- * 비교, 비유대상: 孔愉, 丁潭
-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 품평내용: 재능과 風格(명망)
- * 품평결과: 好評

12) 김장환 교수는 賞譽편 제37조에서 巖巖을 ‘험준한 바위로 해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산이 높고 험한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다.
 13) 역주에서 김장환 교수는 「峯距란 산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는 모양으로, 성품이 준엄한 것을 비유한다」고 하고 있다.

r. 言語편 제33조:

고사공(고화)이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왕승상(왕도)을 만나보러 갔는데, 승상이 조금 피곤하여 그와 마주한 채 졸았다. 이를 본 고사공은 승상을 정신차리게 할 생각으로 동석한 사람들에게 말하길 “지난 달 매번 원공에게서 듣기로는 승상께서 중종을 보위하여 강남 땅을 보전하셨다고 하는데, 몸을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으시니 사람을 숨차게 하십니다” 라고 하자, 승상이 이에 퍼뜩 깨어 고사공에게 이르길 “이 사람은 규장처럼 인품이 뛰어나고 빈틈이는 기지 속에 예리함이 있도다!” 라고 했다. (顯司空未知名, 詣王丞相, 丞相小極, 對之疲睡: 顯思所以叩會之, 因謂同坐曰: 「昔每聞元公道公協贊中宗, 保全江表: 體小不安, 令人喘息.」 丞相因覺, 謂顯曰: 「此子珪璋特達, 機警有鋒.」)

- * 피품평자: 顯和(顯司空)
- * 비교, 비유대상: 珪璋(옥으로 만든 귀중한 기물)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인품)과 기지
- * 품평결과: 好評

s. 賞譽편 제40조:

승상(왕도)이 자궁(유종)을 품평하길 “철리를 매우 깊이 깨닫고 있으니 나보다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했다. (丞相目子躬云: 「入理泓然, 我已上人.」)

- * 피품평자: 庾琮(庾子躬)
- * 비교, 비유대상: 품평자 王導
- * 품평방식: 比自己(품평자 자신과 비교)
- * 품평내용: 談論
- * 품평결과: 好評

t. 賞譽편 제61조:

왕승상(왕도)이 사도에 임명되고 나서 탄식하길 “유왕교(유주)가 만약 장강을 넘어왔더라면, 나 혼자만 삼공에 임명되지는 않았을텐데!” 라고 했다. (王丞相拜司徒, 而歎曰: 「劉王喬若過江, 我不獨拜公.」)

- * 피품평자: 劉曄(劉王喬)
- * 품평방식: 直敘(직접 서술)

* 품평내용: 風格(人才)

* 품평결과: 好評

u. 識鑒편 제11조:

제갈도명(제갈회)이 처음 강남으로 건너왔을 때 스스로 도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전에 임기령으로 있을 때 승상(왕도)이 말하길 "명부는 틀림없이 검은 머리의 재상이 될 것이오" 라고 했다.(諸葛道明初遇江左, 自名道明, 名亞王·庾之下, 先爲臨沂令, 丞相謂曰:「明府當爲黑頭公!」)

* 피품평자: 諸葛恢(諸葛道明)

* 비교, 비유대상: 黑頭公(검은 머리의 재상, 즉 젊은이로서 삼공의 지위에 오른 자를 말함)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품평내용: 風格(人才)

* 품평결과: 好評

1) 피품평자와의 관계

왕도의 인물 품평 중 왕도와 피품평자의 관계는 크게 氏族관계, 親族관계, 親屬관계, 屬官, 그리고 교유가 없는 관계로 나눌 수 있다.

① 氏族관계

賞鑒편 제37조에서 같은 낭야 왕씨이나 別族인 王衍을 품평.

② 親族관계

· 父評子(아버지가 자식을 품평): 容止편 제25조에서 왕도와 왕염.

· 從父評從子(당숙이 당질을 품평): 品藻편 제28조에서 왕도가 조카 왕희지를, 輕詆편 제8조에서 조카 왕팽지와 왕표지를 품평.

③ 親屬관계

주로 혼인을 통한 관계로 品藻편 제23조에서 사돈의 사돈인 왕술, 文學편 제22조에서 사돈의 동서인 은호, 品藻편 제26조에서 사돈인 사상을 품평.

④ 屬官관계

品藻편 제23조에서 속관으로 초빙한 왕술을 품평¹⁴⁾.

⑤ 교유가 없는 관계

14) 卍장 1절의 b부분 참조.

賞譽편 제47조와 品藻편 제16조에서 주의, 容止편 제16조와 傷逝편 제6조에서 위개, 賞譽편 제54조에서 조현량, 賞譽편 제54조에서 대약사, 賞譽편 제54조에서 변망지, 言語편 제33조에서 고희화, 識鑒편 제11조에서 제갈도명, 品藻편 제13조에서 공유, 品藻편 제13조에서 정담, 品藻편 제13조에서 우비, 輕詆편 제6조에서 채모, 賞譽편 제61조에서 유주를 품평.

2) 인물품평방식

왕도의 인물품평방식 뿐만 아니라 《世說新語》 가운데 인물품평에 있어 가장 특이한 방식은 比論방식이다. 이 比論방식의 대상은 사물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비유, 비교해서 인물을 품평한다.

① 比物(사물이나 사건에 비유)

- 賞譽편 제37조에서 왕연을 巖巖(힘준한 바위)에 비유해서 품평.
- 文學편 제22조에서 은호를 正始之音(정시 시기의 청담)에 비유해서 품평.
- 輕詆편 제8조에서 왕팽지와 왕표지를 虎狆(새끼 돼지)와 虎犢(새끼 소)에 비유해서 품평.
- 賞譽편 제54조에서 대약사를 巖巖(산이 높고 험한 모양)¹⁵⁾에 비유해서 품평.
- 賞譽편 제54조에서 변망지를 峯距(산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는 모양)에 비유해서 품평.
- 言語편 제33조에서 고희화를 珪璋(옥으로 만든 귀중한 기물)에 비유해서 품평.

② 比人

- 比他人(타인과 비교): 品藻편 제16조에서 주의와 화교, 品藻편 제28조에서 왕희지와 유수, 品藻편 제13조에서 우비를 孔愉와 丁潭에 비교.
- 比自家人(친족과 비교): 品藻편 제23조에서 왕술을 왕승과 왕담에 비교.
- 比自己(자신에 비교): 識鑒편 제11조에서 유자궁을 왕도 자신과 비교.

3) 인물품평내용

清談이라는 위진 사회의 특수한 인물품평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인물의 성격, 명망, 태도 등의 風格이나 외모, 시대 특징인 담론 등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대상이 된다.

① 風格

15) 주11 참조.

· 品藻편 제23조에서 왕술의 眞獨簡貴(진솔하고 특출하며 간약하고 고귀한 것)와 曠瀟處(활달하고 담담한 점)을 품평.

· 賞譽편 제47조에서 雅流弘器(주의의 고아한 인물로 큰 기량을 가지고 있음)를 품평.

· 品藻편 제26조에서 사상의 恒令人得上(항상 사람을 항상 진보케 함)을 품평.

② 외모

· 賞譽편 제37조 下注의 顧愷之(王夷甫畫贊)에서 「왕이보는 타고난 풍모가 빼어나(夷甫天形壤特)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외모를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容止편 제16조에서 위세마(위개)의 외모를 비유.

③ 談論

文學편 제22조에서 은호, 賞譽편 제57조에서 祖約, 品藻편 제26조에서 何充(何次道), 賞譽편 제40조에서 庾琮(庾子躬)의 談論을 품평.

4) 인물품평결과

호평과 악평, 그리고 단순 비교 모두가 존재하며, 왕돈처럼 자신의 친족에게 개인적 편견으로 호평을 하지 않고¹⁶⁾, 한 인물에 대해서 호평도 하고 악평도 하는 등의 객관적 태도로 품평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2. 被品評者 王導의 인물품평 분석

a. 言語편 제40조:

주복야(주의)는 풍모가 온화하고 예의가 훌륭했다. 왕공(왕도)을 방문하여 처음 수레에서 내릴 때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았는데, 왕공이 웃음을 머금고 그를 보고 있었다. 좌정하고 나서 도도히 노래를 불렀더니, 왕공이 말하길 “그대는 혜강이나 완적과 같이 되고자 하는가?” 라고 하자, 대답하길 “어찌 감히 가까이 계시는 명공을 버려두고 먼 옛날의 혜강이나 완적과 같이 되고자 하리이까?” 라고 했다.(周僕射雍容好儀形, 詣王公, 初下車, 隱數人, 王公含笑看之, 既坐, 傲然嘯咏, 王公曰: “卿欲希嵇阮邪?” 答曰: “何

16) 方正편 제28조: 「왕함이 여강군의 태수로 있을 때, 瀆職함이 심하여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다. [동생] 왕돈이 자기 형을 옹호하려고 일부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칭찬하길 “우리 형님은 군에서 틀림없이 [정치들]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오, 여강의 인사들이 모두 칭송하는 걸 보니”라고 했다. 당시 하충은 왕돈의 主簿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생색하며 말하길 “제가 바로 여강 사람인데 소문은 그와 다르던데요”라고 했다. 왕돈은 묵묵히 말이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 때문에 불안해했으나, 하충은 안색이 태연자약했다(王含作廬江郡, 貪濁狼籍, 王敦護其兄, 故於衆坐稱: “家兄在郡定佳, 廬江人士咸稱之.”) 時何充爲敦主簿, 在坐, 正色曰: “充即廬江人, 所聞異於此!” 敦默然, 旁人爲之反側, 充晏然神意自若.)」

敢近捨明公，遠希嵇阮?)

- * 품평자: 周顥
- * 비교, 비유대상: 嵇康, 阮籍
-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好評

b. 方正편 제23조:

주후는 그제서야 개연히 부끄러워하면서 탄식하길 “나는 늘 무홍(왕도)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하곤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못하다는 것을 알겠구나!” 라고 했다.(周侯方慨然愧歎曰:「我常自言勝茂弘，今始知不如也!」)

- * 품평자: 周顥
- * 비교, 비유대상: 품평자 周顥 자신
- * 품평방식: 比自己(품평자 자신과 비교)
- * 품평내용: 風格(사건대처 능력)
- * 품평결과: 好評

c. 排調편 제17조:

명제가 주백인에게 물길 “진장(유담)은 어떠한 인물이오?” 라고 하자 대답하길 “진정 친 근이나 되는 힘센 수소입니다” 라고 했다. 왕공(왕도)이 그 말을 듣고 웃었더니, 주백인이 말하길 “말 잘 듣는 뿔 꼬부라진 암소만은 못하지요” 라고 했다.(明帝問周伯仁:「眞長何如人?」答曰:「故是千斤犗特。」王公笑其言。伯仁曰:「不如捲角犗，有盤辟之好。」)

- * 품평자: 周顥
- * 비교, 비유대상: 捲角犗(늑은 암소)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惡評

d. 企羨편 제1조:

왕승상이 사공에 임명되었을 때, 환정위(환이)가 두 갈래로 머리를 묶고 길포 하의에 지팡이를 짚은 채 길가에서 그를 훑쳐보며 감탄하길 “사람들이 아룡(왕도)을 뛰어난다고 하더니 아룡은 정말 뛰어난구나!” 라고 했다. (王丞相拜司空, 桓廷尉作兩髻, 葛裙·策杖·路邊窺之: 歎曰: 「人言阿龍超, 阿龍故自超!」)

- * 품평자: 桓彝(桓廷尉)
- * 관계: 친속관계(사돈)¹⁷⁾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王導 어렸을 때의 風格
- * 품평결과: 好評

e. 排調편 제13조:

유진장(유담)이 처음 왕승상(왕도)을 만났다. 그때는 한창 더운 계절이었는데, 승상이 배를 탄기 판에 갖다대며 말하길 “어쩌면 이렇게 차가울까?” 라고 했다. 유진장이 나온 뒤에 어떤 사람이 묻길 “왕공(왕도)을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라고 하자, 유진장이 말하길 “다른 특이한 점은 보지 못했고, 다만 오어를 사용하는 것만 들었소이다”라고 했다. (劉眞長始見王丞相, 時盛暑之月, 丞相以腹炭彈棊局, 曰: 「何如乃溷?」 劉既出, 人問: 「見王公如何?」 劉曰: 「未見他異, 唯作吳語耳!」)

- * 품평자: 劉惔(劉眞長)
- * 관계: 친속관계(사돈의 처형)¹⁸⁾
- * 품평방식: 直敍(직접 서술)
- * 품평내용: 風格(정치관)¹⁹⁾
- * 품평결과: 惡評

f. 言語편 제36조:

[은교가] 왕승상(왕도)을 방문하여 “주상께서 오랑캐의 포로가 되셨고 사직이 불타 무너졌으며 왕릉이 참혹하게 훼손되어 서리의 비통함이 있음을 진언했다. 은교는 충정과 강개함이 너무나도 격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고, 승상도 그와 함께 마주 보며 울었다. 심정을 다 털어 놓고 나서 힘을 합하자고 강하게 주장하자 승상도 흔쾌히 받아 들었다. 물러 나와 기뻐하며 말하길 “강남에도 관이오(관중)가 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17) 표4 참조.

18) 표5 참조. 劉孝標 注에 「부인은 유담의 여동생이다(婦人, 劉惔之妹.)」라는 내용이 있다.

19) 김장환 교수는 여주에서 「陳寅恪의 견해에 따르면, 東晉 初에 국가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을 때 왕도는 江東의 인심을 달래기 위하여 일부러 吳語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다.

걱정하리오?” 라고 했다.(既詣王丞相, 陳主上幽越, 社稷焚滅, 山陵夷毀之酷, 有忝離之痛: 溫忠慨深烈, 言與泗俱, 丞相亦與之對泣, 敘情既畢, 便深自陳結, 丞相亦厚相酬納, 既出, 愜然言曰: 「江左自有管夷吾, 此復何憂?」)

- * 품평자: 溫嶠
- * 비교, 비유대상: 管仲(管夷吾)
-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충정)
- * 품평결과: 好評

g. 樓逸편 제4조:

[이훤은] 이미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왕승상(왕도)이 그를 불러 예우해주려고 일부터 승상부의 속관으로 초정했다. 이훤은 임명장을 받아 보고 웃으며 말하길 “무홍(왕도)은 여전히 관직 하나를 남에게 빌려주려 하는구먼!” 이라고 했다.(既有高名, 王丞相欲招禮之, 故辟爲府掾, 廉得賤命, 笑曰: 「茂弘乃復以一爵假人?」)

- * 품평자: 李廞
- * 품평방식: 直敘(직접 서술)
- * 품평내용: 風格
- * 품평결과: 惡評

h. 術解편 제8조:

왕승상(왕도)이 괄박에게 시험 삼아 한 괘를 짚어보게 했는데, 괘가 나오자 괄박이 매우 난감한 기색을 띠며 이르길 “공은 벼락맞을 액운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왕승상이 묻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자, 괄박이 말하길 “거마를 채비하게 하여 서쪽으로 몇 리를 가면 촉백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것이니, 공의 키만큼 잘라서 침상의 늘 주무시는 곳에 두면 재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승상은 그의 말대로 했다. 며칠 뒤에 과연 벼락이 쳐서 촉백나무가 산산조각이 나자, 자제들이 모두 경하드렸다. 대장군(왕돈)이 이르길 “당신은 결국 죄를 나무에 전가시켰군요”라고 했다.(王丞相令郭璞試作一卦, 卦成, 郭意甚惡, 云: 「公有震厄!」王問: 「有可消伏理不?」郭曰: 「命漏西出數里, 得一柏樹, 截斷如公長, 置牀上常寢處, 災可消矣。」王從其語, 數日中, 果震柏粉碎, 子弟皆稱慶, 大將軍云: 「君乃復委罪於樹木!」)

- * 품평자: 郭璞
- * 비교, 비유대상: 周易의 卦

- * 품평방식: 比物
- * 품평내용: 운세
- * 품평결과: 惡評

I. 品藻편 제20조:

왕승상(왕도)이 이르길 "근자에 세간의 논평에서 나를 안기(왕승)와 천리(완첩)에 견주고 있는데, [나] 또한 이 두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했다.(王丞相云:「頃下論, 以我比安期·千里, 亦推此二人。」)

- * 품평자: 世論(頃下論)
- * 비교, 비유대상: 王承(王安期), 阮瞻(千里)
-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 품평결과: 단순 비교

j. 品藻편 제6조:

또한 팔배를 팔왕에 견주었는데, 배휘를 왕상에, 배해를 왕이보에, 배강을 왕수에, 배작을 왕징에, 배찬을 왕돈에, 배하 왕도에, 배위를 왕용에, 배막을 왕현에 견주었다.(又以八裴方八王: 裴徽方王祥, 裴楷方王夷甫, 裴康方王綏, 裴綽方王澄, 裴瓚方王敦, 裴遐方王導, 裴頴方王戎, 裴邈方王玄.)

- * 품평자: 世論(正始 時期의 人士)
- * 비교, 비유대상: 裴遐
- * 품평방식: 比他人(타인과 비교)
- * 품평결과: 단순 비교

k. 容止편 제15조:

어떤 사람이 왕태위(왕연)를 찾아갔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안풍(왕용), 대장군(왕돈), 승상(왕도)을 만나 별채로 가서 계윤(왕후), 평자(왕징)를 보았는데,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길 "오늘의 방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임랑의 주옥이었소"라고 했다.(有人詣王太尉, 遇安豐·大將軍·丞相在坐: 往別屋見季胤·平子·還, 語人曰:「今日之行, 觸目見琳琅珠玉。」)

- * 품평자: 有人(어떤 사람)
- * 비교, 비유대상: 琳琅珠玉(美玉의 명칭)

- * 품평방식: 比物(사물에 비유)
- * 품평내용: 風格(인물)
- * 품평결과: 好評

1) 王導와의 관계

품평자와 피품평자 왕도의 관계는 親屬 관계, 교유가 없는 관계, 그리고 불특정인이 왕도를 품평하는 관계(世論)로 나눌 수 있다.

① 親屬 관계

企羨편 제1조에서 사돈인 환이, 排調편 제13조에서 사돈의 처형인 유담이 왕도를 품평.

② 교유가 없는 관계

言語편 제40조, 方正편 제23조, 排調편 제17조의 주의, 言語편 제36조의 은교, 棲逸편 제4조의 이흠, 術解편 제8조의 곽박.

③ 불특정인이 왕도를 품평하는 관계(世論)

賞譽편 제6조, 제20조, 容止편 제15조.

2) 王導 품평방식

① 比物(사물이나 사건에 비유)

排調편 제17조에서 주의가 捲角牴(늑은 암소)에 비유해서 품평, 術解편 제8조에서 곽박이 周易의 卦에 비유해서 품평, 容止편 제15조에서 有人(불특정인)이 왕도 등을 琳琅珠玉(美玉의 명칭)에 비유해서 품평.

② 比人

· 比他人(타인과 비교): 言語편 제40조에서 혜강과 완적, 言語편 제36조에서 管仲(管夷吾), 品藻편 제20조에서 왕승과 왕담, 品藻편 제6조에서 배하를 왕도와 비교.

· 比自己(자신과 비교): 方正편 제23조에서 주의가 왕도를 자신과 비교.

3) 王導 품평내용

言語편 제40조, 方正편 제23조, 排調편 제17조, 企羨편 제1조, 排調편 제13조, 言語편 제36조, 容止편 제15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왕도의 일처리, 정치관, 충정, 인물됨, 사건대처능력을 통해서 그의 풍격을 품평. 그 중 方正편 제23조와 같이 사건대처능력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이 특이하다.

4) 王導 품평결과

호평과 악평. 단순비교 모두 존재하나, 악평은 주로 그의 말년 無爲政治의 부정적 측면²⁰⁾과 관련되어 있다.

Ⅲ. 結論

위에서 왕도를 중심으로 왕도가 품평한(품평자) 내용과 품평당한(피품평자) 내용을 살펴보면 씨족, 친족, 친속, 世論 등 교유의 有無에 상관없이 상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아무런 금기사항없이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인물품평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품평방식 또한 比論(比物, 比他人, 比自己, 比自家人)등의 방식으로 인물의 아름다움이나 風格을 자연물상에 결합 비유하여 품평을 듣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상상을 일으키거나, 추상적인 사물 혹은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形象化시켰으며, 이미 유형화, 정형화된 인물을 기준으로 피품평자의 추상적인 명망을 비교하거나 사건 처리 태도로 인물의 우열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품평방식의 다양성은 전통적인 유가의 “德”으로 인물을 품평하는 것과는 다른 그 시대(위진시대)적 개성이었으며, 또한 나름대로의 특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한 인물에 대한 품평결과도 好評과 惡評이 자유롭게 존재하며²¹⁾, 王導와 周顛 같이 상호 호평과 악평을 주고받는 품평도 있다²²⁾. 또한 이전의 시대와 다른 위진 시대의 독특한 점을 품평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인물품평은 당시 士族들의 사교문화 활동으로써 당시의 정치상황과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유가 전통의 도덕 숭상적 외형미가 아닌 주로 인물의 風格, 외모, 談

20) 政事편 제15조와 規箴편 제14조, 排調편 제17조 참조.

21) 品藻편 제26조에서 王導는 何充을 악평하였으나, 賞譽편 제60조에서는 文理와 才氣가 있는 何充을 호평하였다. 또 容止편 제16조에서 왕도는 衛玠의 외모를 악평하였으나, 傷逝편 제6조에서는 위계의 風格을 호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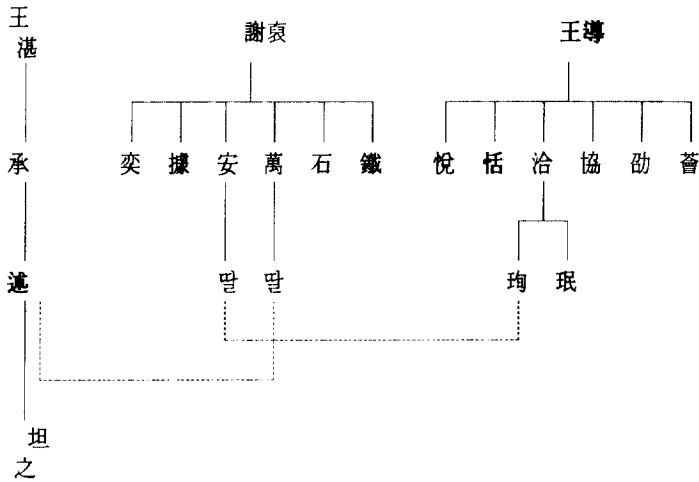
22) 品藻편 제16조에서 왕도는 주의를 和嶠와 비교하여 악평하였으나, 賞譽편 제 47조에서는 오히려 호평하였다. 한편 주위의 言語편 제40조, 方正편 제23조, 排調편 제17조에서 볼 수 있듯이 왕도를 호, 악평하였다. 이로보아 당시 품평태도는 상대적이고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論 등을 심미적으로 품평하여 정치와는 상관없이 인물의 명예, 지위, 명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실용적, 정치적 측면을 완전히 초탈한 심미적 품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賞譽편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분위기는 심미적(자연미와 인물미의 결합 등)인 색채가 농후한 심미적 인물품평이라 결론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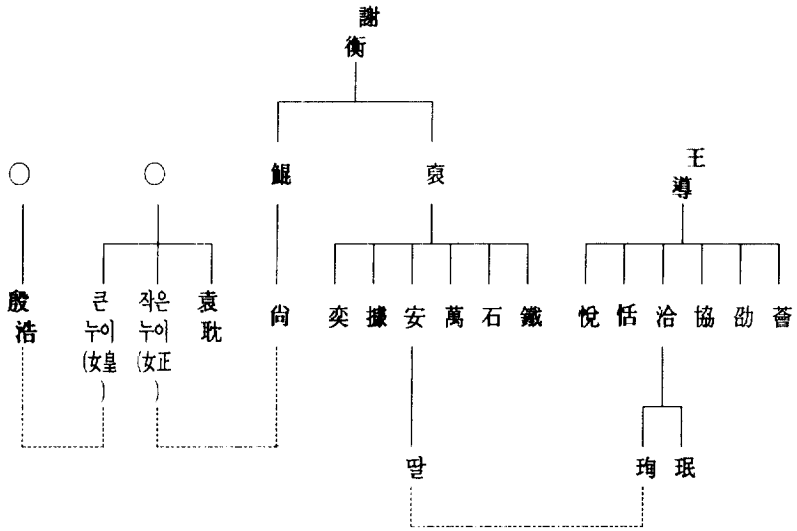
【도표】

- : 親族관계
- … : 婚姻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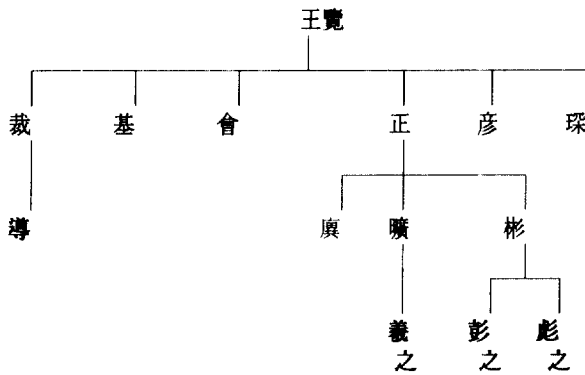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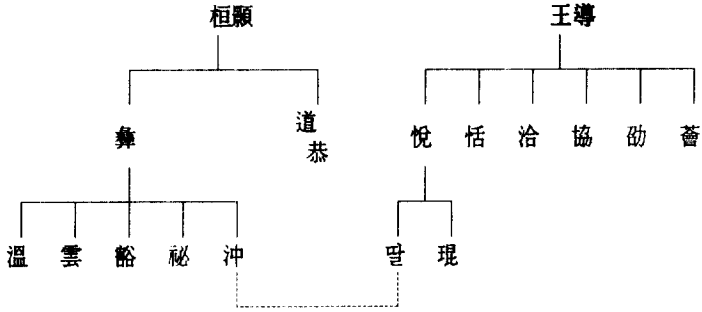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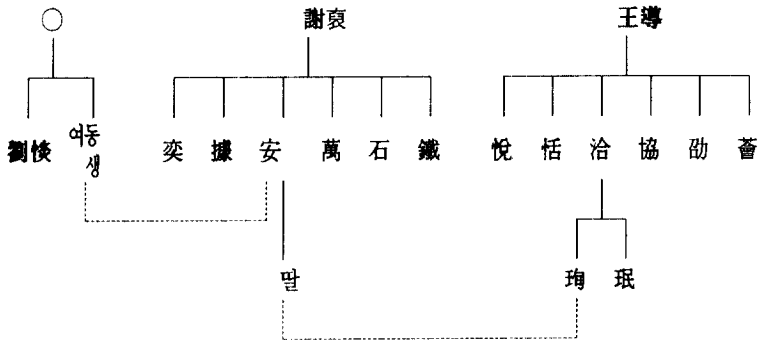
【표 3】



【표 4】



【표 5】



【參考文獻】

-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 王能憲 《世說新語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2

- 蔣凡 《世說新語研究》上海，學林出版社，1998
- 甯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4
- 甯稼雨 〈世說新語是志人小說觀念成就的標志〉：《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89/2
- 廖麗鳳 〈世說新語之人物群像及描寫技巧研究〉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1989
- 葉慶炳 〈論世說新語比較人物優劣〉：《書評書目》57，臺北，1978
- 金長煥 〈世說新語研究〉서울대中文科碩士論文，1987
- 葉柏村 〈世說新語中所見魏晉清談風尚〉：《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82/10
- 宗白華 〈論世說新語和晉人的美〉：《美學與意境》，北京，人民出版社，1987
-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鑒之研究〉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1982
- 林麗真 〈從世說新語看魏晉清談論辯的主題〉：《書目季刊》10/4，臺北，1977
- 方碧玉 〈魏晉人物品評風尚初探-以世說新語為例〉臺灣國立中興大學碩士論文，1996

【中文提要】

《世說新語》再現魏晉風度，是通過記載那個時代士大夫們的言行軼事來完成的。如‘言語’、‘文學’、‘賞譽’等門較為集中地記載了清談方面的言行，‘雅量’、‘豪爽’、‘傷逝’、‘棲逸’、‘任誕’、‘簡傲’等門多記載的是名士們放達任誕方面的趣事，而‘政事’、‘品藻’、‘容止’等門則記載了盛行當時的品評人物方面的內容。

魏晉社會以清談為尚，諸學者認為清談乃是雅談，即指具體的人物批評，雖知清談內容限於此，但諸學者觀點，可知人物批評在魏晉時期所具的特殊性，故本文以此為探討核心，人物品評的全面性探究，非短時間能力所及，故在探討時，以魏晉大族琅琊王氏中王導為研究對象，期由此範圍出發，做為日後廣泛探究之基礎。

王導之人物品評內容及被品評內容是相當廣泛的，故本文共分三章。第一章緒論，第二章本論，本論共分兩節，第一節闡述品評者王導之人物品評分析，第二節闡述王導之被人物品評內容分析，第三章結論，總結本文研究所得。

【주제어】 세설신어 인물품평 왕도